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

Parental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Parents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민정
한신대학교 아동보육과
초빙교수 유희정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Mok Won University

Professor : Min Jung Kang

Department of Child Edu-Care, Han Shin University

Invited Professor : Hee Jung You

목 차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parents saw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year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arents, and how these perceptions were influenced by parental background factors. A total of 334 parents who sent their child to a kindergart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d test, t-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had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ir child's education, but little actual knowledge about the contents and strategies of education in the kindergarten setting. Second, regarding parental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necessity for parents's involvement in the institution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average. Third,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ff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e. kindergartens, and parents both teachers and parents hoped to form a relationship in which they could freely exchange their opinions.

주제어(Key Words) : 유아교육기관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부모 참여 (parental participation), 협력 관계 (mutual relationships)

I. 서론

부모는 유아가 출생 후 처음 접하게 되는 최초의 환경으로, 최초의 양육자이며 교육자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찾아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성공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체계가 미흡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 받기를 원한다(Song, Yoon, & Lee, 2001).

일반적으로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은 부모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적절하고도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의의를 두어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정성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의 의무, 책임, 기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행력을 길러주고 부모로서의 효과적인 태도, 기술, 행동을 개발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최적화하는 것이다(Kim, 2007). 이러한 부모교육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가정보다 교육기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부모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가 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부모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Choi, 2004; Jang, 2005).

우리나라 부모교육에서 부모 참여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입증되기 시작하였다. Park, Jang과 Kang(1985) 연구에 의하면, 부모교육 실시 이후 부모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등이 성취,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Ko(1992)는 부모회의 경우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면담의 경우 부모와 자녀교육에 대한 상호의논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교육에 효과적이었으며 가정방문의 경우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교육에 도움이 되었고, 가정통신문과 보조교사로서의 참여, 운영 결정자로서의 참여는 모두 유치원 운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국외 연구들에서도 증명되었는데, McBride, Sharp, Hains과 Whitehead(1995)는 부모가 참여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느끼고 자기만족을 향상시키며 자녀에 대한 행동수정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을 학습해 나가게 된다고 하였으며 Gestwicki(2004)는 부모참여는 부

모역할 수행에 관한 지원을 하며 자녀양육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며 부모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통해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부모의 측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아의 측면에서 보면 유아들의 성취도, 긍정적 행동, 언어 및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며(Berger, 1991), 유아교육기관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모의 생각과 요구를 파악하여 유용한 부모참여가 실행되도록 한다(Baek, 2008; Epstein, 1986).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부모참여의 교육적 효과는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밀접한 연계로 일관성 있는 부모참여가 이루어질 때, 또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동반자로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유대관계와 연결을 유지할 때, 극대화할 수 있다(Lee, 2000; Lee & Kim, 1999). 따라서 부모참여를 행하는 부모와 부모참여를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부모가 교육기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아교육기관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협력적인 관계(Family-school partnership)’ 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Bae, 2002; Swick, 1991). 구체적으로 협력적인 관계의 개념은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유아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능력과 자원을 함께 축적하고 함께 사용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상호간의 명료한 목적을 지닌 동등한 관계, 분명하게 협의된 역할 및 참여자간의 공평한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협력적 관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기관의 관계에 대한 이상이나 모범을 뜻하며, 이는 유아에 대한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연속적이며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Lee & Bae, 2000).

이러한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와의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협력관계는 앞으로 유아의 삶의 있어 교육적 파트너로서 부모역할기반이 될 수 있고, 교사들은 개별 유아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Goldenberg, 1989),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Choi, 2004; Jang, 2005). 그러나 협력관계를 살펴 본 몇몇의 연구들에서는 많은 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인 부모참여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실시에만 치중하거나 부모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Lee, 1983), 교육기관의 교사나 행정가가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함을 인식할지라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는 모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hoi, 2004).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부모는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끊임없이 양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편, 최근 취업도 증가, 출산 연령 증가, 사회구조에 따른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각각의 환경에 적절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드물며, 협력관계에 대한 교사나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부모참여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기관은 더욱 드물다(Choi, 2003).

이는 부모참여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참여의 유형과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Lee & Bae, 2000; Phyeon, 2002)와 부모참여의 유형과 인식을 조사한 연구(Kim, 2003; Lee, 2000),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비교 연구(Baek, 2003; Kim,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연구(Kim, 2007)등으로 표면적인 부모참여의 형태, 인식, 요구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교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Choi, 2004), 부모-교사의 협력적인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Jang, 2005)등과 같이 부모참여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협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참여를 살펴보는 연구(Choi, 2003; Choi, 2007)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에 협력관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은 부모의 연령, 직업유무 등의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모들이 부모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모참여를 계획해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배경이 다른 부모들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유무 뿐 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연령, 교육비 지원 유무 등 다양한 부모의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의 필요성과 정도 및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인식을 부모의 특성인 학력, 직업유무, 연령, 교육비지원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참여 계획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인식은 어떠한가, 부모의 변인(학력, 직업유무, 교육비지원여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부모의 변인(학력, 직업유무, 교육비지원여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부모의 변인(학력, 직업유무, 교육비 지원여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Table 1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 계획과 부모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시에 소재하고 있는 18개원의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3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형성을 위하여 부모 배경 변인별로 부모의 인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Choi, 2003; Choi, 2007; Hong, 2003; Phyeon, 2002)를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respondent

	Category	N(%)
Age	age of 20-29	20(6.0)
	age of 30-39	255(76.3)
	above 40	59(17.7)
	Total	334(100)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43(12.9)
	College	261(78.4)
	Graudate	29(8.7)
	Non answer	1(0.3)
	Total	334(100)
Employment	None	201(60.2)
	Full time	93(27.8)
	Part time	39(11.7)
	Non answer	1(0.3)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Total	334(100)
	Yes	197(59.0)
	No	136(40.7)
	Non answer	1(0.3)
	Total	334(100)

Table 2.
Organization of questionnaire

Section	Category	Form of response	Number of Questions
Background	Gender, age,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umber of children,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Multiple choices	6
Interest in early child education	Interest and importance on early child education	five points scale	3
Participation of parents in early child education institution	Types of parent's participation event	Multiple choices (multiple answers)	13
	Participation rate of parent's participation event	five points scale	
	Necessity of parent's participation event	five points scale	
	Reasons for parent's participation	Multiple choices	
E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ECE and parents	Necessity for the e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ECE and parents	Five points scale	15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문항이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받기 위하여 유아교육학과 교수 3인, 어머니 3인, 교사 2인에게 영역과 하위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검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영역에 맞게 질문지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최종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문항(6),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 참여(13),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15)의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형식은 각 문항에 대하여 하위진술문을 두어 반응하게 하는 선택형과 5점 척도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정형으로 제작된 문항의 신뢰도는 산출한 결과 Cronbach $\alpha = .84$ 이었다. 질문지 문항의 구성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최종적으로 작성된 질문지는 유치원 교사 5명,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필요 항목을 연구자가 제시한 항목 이외에 3항목을 추가로 제안하여 총 1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의 부모와의 협력 관계 증진에 관한 부모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5점 척도에서 '모르겠음' 이라는 답변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2) 본 연구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형성을 위하여 부모 배경 변인별로 부모의 인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치원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할 것을 허락한 18개원의 사립유치원에 질문지를 보냈다. 질문지는 2010년 4월에

배부하고 5월에 회수하여 242부를 1차적으로 분석 하였다.

1차 분석 결과, 부모의 직업 유무와 교육비 지원 변인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가진 부모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부모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교사 분석 시 셀의 빈도 값이 40%가 되는 문항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증원한 결과, 직업을 가진 부모는 84명에서 132명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부모는 92명에서 136명으로 증원하여 총 334부가 연구에 분석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논문을 위해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고, 그들의 변인(연령, 학력, 직업유무, 교육비 지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명목형 문항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증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 -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 분석 후 유의한 변인에 대하여 Scheffé 통계량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변인에 따른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인식의 차이

1)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는 평균 4.34(5점 척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학력($F = 8.767, p < .001$)과 교육비 지원 여부($t = -3.981,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Table 3.
Parents's interest in child education

Category			N	M	SD	t/F	Scheffé post analysis
Total			333	4.34	.789		
Parents's interest in child education	Educational level (n = 333)	High school	43	3.98	.771	8.7671***	Graduate> College>High school
		College	261	4.36	.794		
		Graduate	28	4.75	.518		
	Employment (n = 332)	No	201	4.33	.788	-.257	-
		Yes	131	4.35	.793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 = 332)	Yes	196	4.21	.843	-3.981***	-
		Non	136	4.54	.654		
	Age (n = 333)	20's	20	4.15	.933	1.503	-
		30's	254	4.32	.794		
		40 or over	59	4.47	.704		

** p < .01, ***p < .001.

Table 4.
Importance of kindergarten education

Category			N	M	SD	t/F	Scheffé post analysis
Total			331	4.56	0.655		
Weight of ECE for the child education	Educational level (N = 330)	High school	42	4.64	0.577	.378	-
		College	259	4.55	0.783		
		Graduate	29	4.55	0.655		
	Employment (N = 330)	Yes	199	4.55	.649	.012	-
		No	131	4.58	.667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 = 328)	Yes	194	4.57	.650	.201	-
		No	134	4.54	.665		
	Age (N = 331)	20's	20	4.45	.887	.453	-
		30's	252	4.56	.644		
		40 or over	59	4.61	.655		

*p < .05, **p < .01

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유치원 교육의 중요도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4.56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자녀의 유치원 교육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의 유치원 교육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는 평균 3.78로 나타났으며, 부모 배경 변인별로 보면 자녀의 유치원 교육 방향 및 교육내용에 대하

Table 5.
Perception on child kindergarten's education course and context

Category			N	M	SD	t/F	Scheffé post analysis
Total			332	3.78	0.742		
Perception on child's kindergarten education and course	Education level (N = 331)	High school	43	3.72	0.701	.407*	Graduate, College>High school
		College	259	3.78	.739		
		Graduate	29	3.78	.743		
	Employment (N = 330)	No	199	4.55	.649	.012	-
		Yes	131	4.58	.667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 = 330)	Yes	194	4.57	.650	.201	-
		No	136	4.54	.655		
	Age (N = 332)	20's	20	3.70	.801	.362	-
		30's	253	3.77	.751		
40 or over		59	3.78	.690			

* $p < .05$, ** $p < .01$

Table 6.
Necessity of parent's participation

Category			N	M	SD	t/F	Scheffé post analysis
Total			331	4.03	.772		
Necessity of parental participation	Education level (N = 330)	High school	43	4.00	.690	1.160	-
		College	258	4.02	.794		
		Graduate	29	4.24	.689		
	Employment (N = 330)	No	200	4.09	.755	1.509	-
		Yes	130	3.95	.796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 = 330)	Yes	194	3.96	.797	-1.956	-
		No	136	4.13	.728		
	Age (N = 331)	20's	20	4.25	.786	1.935	-
		30's	252	3.99	.781		
40 or over		59	4.15	.715			

여 학력이 높은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t = 4.07, p < .05$), 직업 유무, 교육비 지원 여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 변인에 따른 부모 참여 실태와 인식의 차이

1) 부모 참여 필요 정도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 참여의 필요 정도는 평균 4.03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 부모 참여의 필요 정도

는 학력이 높고, 직업이 없으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참여 정도를 물어 본 결과, 평균 3.41로 나타났다. 부모참여 정도는 학력($F = 5.025, p < .01$)과 직업여부($t = 2.824,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참여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Rate of parent's participation

Category		N	M	SD	t/F	Scheffé post analysis	
Total		334	3.41	0.967			
Parent's participation rate	Education level (N = 329)	High school	43	2.98	1.012	5.025**	College>High school
		College	258	3.47	.959		
		Graduate	28	3.50	.839		
	Employment (N = 329)	No	197	3.52	0.912	2.824**	-
		Yes	132	3.22	1.014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 = 329)	Yes	196	3.36	1.000	- 1.320	-
		No	133	3.50	.893		
	Age (N = 330)	20's	20	3.50	1.100	.265	-
		30's	253	3.42	.975		
40 or over		57	3.33	.893.			

*p < .05, **p < .01

Table 8.
Reasons for parents not participating ECE events (N = 308)

Category	N(%)	Rank
Lack of time	182(59.1)	1
No need to do so	7(2.3)	
Feel pressure on visiting the institution	27(8.8)	3
Does not want to participate in institution's work	1(0.3)	
Because institution does not welcome	1(0.3)	
No place to take care of child	63(20.5)	2
Did not get noticed	4(1.3)	
Etc	23(7.5)	
Total	308(100.0)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모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59.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20.5%), '기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8.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를 경험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참여한 유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여 한 형태는 '부모참여 수업(89.1%)', '개별 면담(81.3%)', '오리엔테이션(7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특별교사(9.2%)', 가정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개별 면담(10.7%)', 특별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일교사(17.5%)'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들의 참여 유형과 부모 관련 변인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 참여 수업'과 '개별 면담'은 부모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리엔테이션'은 부모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리엔테이션은 학력이 높을 경우 참여율이 높으며($\chi^2 = 17.983, p < .001$), 직업을 가지지 않는 어머니의 참여율이 높으며($\chi^2 = 6.316, p < .05$),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부모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8.101, p < .01$).

3. 부모의 변인에 따른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위한 부모 인식의 차이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평균의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부모들이 유치원과 협력관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 1위로 '교사와 부모는 믿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M = 4.61, SD = 0.61)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교사는 자녀의 상황에 대하여 부모에게 자주 알려 주어야 한다'(M = 4.47, SD = 0.68), '부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자녀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M = 4.45, SD = 0.66)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자녀양육 이외의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M = 3.11, SD = 0.99), '교사는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녀의 활동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M = 3.34, SD = 0.94),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 전반에 도움 주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한다'(M = 3.44,

Table 9.
Types of parent's participation¹⁾

Context	N(%)		M(SD)	Rank
	있다	없다		
Class or workshop that provide information on early child education or child nursing	208(65.4)	110(34.6)		4
Small group of parents that discuss child's problems or education	82(27.2)	220(72.8)		5
Parent aid group that helps class or institution event(field trip, sports meeting)	66(22.0)	234(61.9)		6
Individual interview on child's development and education	257(81.3)	59(18.7)		2
One day teacher for the special class	53(17.5)	249(82.5)	3.96**	8
Parent participation class that work with children	287(89.1)	35(10.9)	(1.758)	1
Individual interview for the difficulties at home	32(10.7)	267(89.3)		9
Parents's conference that decide issues of institution or class	57(18.9)	244(81.1)		7
Special teacher who guides after school activities	28(9.2)	275(90.8)		10
Orientation which guides institutions's education course, context and method.	237(74.3)	82(25.7)		3

** $p < .01$

Table 10.
Participation on orientation (N = 332)

Category		N(%)		χ^2
		No	Ye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51.2)	21(48.8)	17.983***
	College	55(22.2)	193(77.8)	
	Graduate	4(14.8)	23(85.2)	
Employment	None	48(25.3)	142(74.7)	6.316*
	Full time	30(32.6)	62(67.4)	
	Part time	4(11.1)	32(88.9)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No	22(17.1)	107(82.9)	8.101**
	Yes	59(31.2)	130(68.8)	

* $p < .05$, ** $p < .01$, *** $p < .001$

$SD = 0.97$), '기관에서는 부모끼리 협력할 수 있는 모임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M = 3.58$, $SD = 0.8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과 부모 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항목만을 살펴보면 Table 12, Table 13, Table 14, Table 15, Table 16과 같다.

Tabl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수시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는 의견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6.312$, $p < .01$), 대학원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활동을 수시로 참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참여 일을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

견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17.624$, $p < .001$), 시간제와 전일제로 일하는 부모는 직업이 없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에 관한 교사의 조언이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는 의견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 = 5.249$, $p < .01$), 30-39세와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20-29세의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 관한 교사의 조언이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협조해야 한다' 는 의견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9.924$, $p < .001$), 30-39세와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20-29세의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기관의 교육방향에 더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본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하였으며, 부모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여부를 묻는 10문항에 대해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질문마다 1점을 부여하여 합을 구한 후,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을 구하였음.

Table 11.
Contents that are needed for effective cooperate relationship between ECE and parents (N = 334)

Context	N(%)					M(SD)	Rank
	Not at all	Not much	Moderate	Little needed	Very much		
More frequent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child's situation	0(0.0)	4(1.2)	58(17.4)	108(32.3)	164(49.1)	4.29(.793)	5
Provide opportunity to decide on issues in class when it is needed	1(0.3)	15(4.5)	82(24.6)	137(41.1)	98(29.4)	3.95(.895)	9
Frequent notice to parents on child's situation	0(0)	0(0)	36(10.3)	76(32.8)	132(56.9)	4.47(.683)	2
Listen and respect parent's opinion	0(0)	2(0.6)	63(18.9)	137(41.1)	131(39.3)	4.19(.756)	6
Provide proper help to solve family problem	14(4.2)	72(21.8)	140(42.3)	73(22.1)	32(9.7)	3.11(.992)	14
Child activity should be open to parents anytime	6(1.8)	44(13.2)	162(48.5)	75(22.5)	47(14.1)	3.34(.938)	13
Parental events should be held on evening or weekends	5(1.5)	20(6.1)	124(37.8)	101(30.8)	78(23.8)	3.69(.951)	9
Introduce and provide activities that help child development to parents	1(0.3)	9(2.7)	84(25.1)	144(43.1)	96(28.7)	3.97(.822)	8
Respect diverse background of parents and communicate effectively	0(0.0)	7(2.1)	85(25.7)	139(42.0)	100(30.2)	4.00(.803)	7
Rent books or instruments	4(1.2)	31(9.3)	105(31.4)	115(34.4)	79(23.7)	3.70(.971)	10
Provide a chance of meeting for parents to cooperate	3(0.9)	25(7.5)	130(39.2)	123(37.0)	51(15.4)	3.58(.870)	11
Parents and teachers should have faith in each other and exchange their opinion freely	0(0)	1(0.3)	21(6.3)	86(25.7)	226(67.7)	4.61(.619)	1
Staff responsible for child care and family life should be present	9(2.7)	38(11.6)	130(39.5)	103(31.3)	49(14.9)	3.44(.971)	12
Parents should believe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accept advice on their child	0(0)	0(0)	30(9.0)	123(36.8)	181(54.2)	4.45(.655)	3
Cooperate with education that institution pursuit	0(0)	1(0.3)	39(11.7)	115(34.5)	178(53.5)	4.41(.704)	4

Table 12.
Visit child's activity at any time (N = 333)

Category	N	M(SD)	F	Scheffé post analysi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3	2.98(1.058)	6.312**
	College	261	3.35(0.901)	
	Graduate	29	3.76(0.912)	
	Total	333	3.34(0.938)	

**p < .01

Table 13.
Parent participation events held on weekends (N = 332)

Category	N	M(SD)	F	Scheffé post analysis
Employment	None	195	3.45(.926)	17.624***
	Part time	93	4.04(.884)	
	Full time	39	4.08(.870)	
	Total	332	3.73(0.986)	

***p < .001

Table 14.
Accepting teacher's advice (N = 334)

Category	N	M(SD)	F	Scheffé post analysis
Age	age of 20-29	20	4.00(0.795)	5.249**
	age of 30-39	255	4.49(0.639)	
	40 or more	59	4.46(0.625)	
	Total	334	4.45(0.655)	

**p < .01

Table 15.
Cooperation on education course that institution pursuit (N = 334)

	Category	N	M(SD)	F	Scheffé post analysis
Age	age of 20-29	20	3.75(0.851)	9.928***	30-39, 40 or more> 20-29
	age of 30-39	254	4.45(0.680)		
	40 or more	59	4.47(0.653)		
	total	334	4.42(0.708)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의 필요성과 정도,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부모의 개인적 특성인 학력, 직업유무, 연령, 교육비 지원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M = 4.34$)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도($M = 4.56$)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유치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Jeon(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부모들이 과거보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Kim(2007)의 의견에 동의한 결과이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교육방향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 = 3.78$). 이는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유아의 삶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며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Jo, 2008), 부모가 사전에 기관의 교육방향 및 내용을 알고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적극적인 자세로 유아교육기관을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기관은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위해 각 기관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해 가정통신문 제공, 면담 실시,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하고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4.03$). 이는 부모의 98.7%가 부모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고 부모참여 비율이 80.9%로 나타난 Jeon(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부모들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로 인해 자녀교육과 부모역할에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Gestwicki, 2004; Ko, 1992; McBride et al., 1995; Park et al., 1985),

부모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참여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 뿐 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어,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다(Baek, 2008). 이처럼 부모참여는 유아를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부모가 공동양육자 및 교육자가 되어 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통해 협력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Bae, 2002; Baek, 2008). 즉, 부모참여는 효율적인 자녀양육 및 교육, 더 크게는 유아교육 및 발달을 위해 교육기관과 부모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므로 유아교육기관은 부모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부모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부모참여의 참여 정도($M = 3.41$)가 필요 정도($M = 4.03$) 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부모들은 '시간이 없어서'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50.0%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Jeong(1994)의 연구결과와 부모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요일 및 시간'이라고 응답한 Ann(2003)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부모들이 부모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참여 유형을 조사한 결과,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의 순은 '부모참여수업(89.1%)', '개별면담(81.3%)', '오리엔테이션(74.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참관 및 참여수업'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Jo(2008)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한 Eom(2000), 맞벌이 부부의 부모참여율을 조사한 Choi(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부모참관 및 참여수업'은 평상시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일교사(17.5%)', '가정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개별면담(10.7%)',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특별교사(9.2%)' 와 같은 부모참여 유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부모참여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한

Choi(2007)의 연구에서 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참여 유형으로 '일일 교사', '견학행사도우미' 라고 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교사여야 하며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관심을 갖고 교육기관의 업무의 협력자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부모참여를 한다기 보다 소극적인 유형에 더 많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은 부모들이 소극적 참여 외에 적극적 참여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유형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은 각 가정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부모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참여여부에 대해 부모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결과, '부모참여수업'과 '개별면담'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라면 개인별 특성에 상관없이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자녀의 교육기관의 생활 및 학습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참여수업'과 '개별면담'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은 학력에 따른, 직업에 따른, 교육비 지원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교육방향 및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Choi(2004)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학기 초에 신입원아의 부모에게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방침-교육이념 및 목표, 교육 계획 및 내용, 행사,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을 소개하고 질문과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일관성 있는 교육으로 부모의 이해와 협조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많은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부모 참여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기 초에 행해지는 한 번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부모의 특성에 따른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부모들은 '교사와 부모는 믿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동반자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진실한 대화와 개별 유아에 대한 부모-교사간의 이해

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Bae(2002)와 Choi(2004)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부모들이 교사와 함께 자녀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형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교사와 부모간의 상호존중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부모들은 '교사는 자녀의 상황에 대하여 부모에게 자주 알려 주어야 한다'와 '부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자녀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를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으로 꼽았다.

물론 교육기관과 부모간의 협력관계가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교육기관의 교사 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문제점을 살펴 본 Jang(2005)의 연구에서 교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 아동관, 현재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모들의 생각과 다르며 부모가 교사들이 유아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을 알지 못하기에 교사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부모는 교사들의 수동적인 의사소통 태도로 자녀의 교육기관의 생활과 발달과정 및 학습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없어 기관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교육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와 교육기관의 교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불편한 의사소통자로 인식이 되면 자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필요 때만 의사소통을 하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로 남게 된다. 또한 언제나 교육기관의 자녀가 다니는 학습에 와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찰과 면담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개방 정책이 부족하다며 교육기관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불만을 토로한 Ham, Yoon과 Ann(2000)의 연구를 보면, 아직도 유아교육기관은 완전히 부모에게 개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긍정적인 양방향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 이외의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교사는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녀의 활동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원활한 협력관계형성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나온 결과와도 일치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부모를, 부모는 교육기관을 신뢰해야 하여 교육기관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하고 자녀 활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부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유치원을 방문하고 수시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대해 존중받고 싶어 하며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부모 참여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직업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일제로 일을 하는 어머니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모들이 부모참여시 토요일이나 오후에 실시하기를 요구한 Jin(2000), Choi(2007), Moon(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의 배경에 따라 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다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다양한 가족구조의 특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은 일하는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사전에 그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함께 함으로써 기관을 신뢰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저녁에 실시할 경우,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늘어나는 많은 업무량과 증가하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Baek, 2008; Hwang, 2003)가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에 관한 교사의 조언이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은 부모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20대보다 30~40대 연령이 교사의 조언이나 제안을 수용하거나, 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에 비해 교사의 조언을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기관의 교육 방향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연령에 따른 부모참여에 대한 요구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부모참여의 내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은 부모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를 존중하고 신뢰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부모들의 특성에 따른 기관에 대한 현실적 인식 및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부모들의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해 부모관련 교육을 연수 받아야 하며 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찰을 통해 부모들과 자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기관의 활용성은 유아교육기관에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참여 계획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고, 어머니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보육시설,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부모들의 면담을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어떠한 방법의 협력이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지,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협력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n, Y-K. (2003). An integral survey on parental involvement at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daeje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mam University, Daejeon, Korea.
- Baek, J-E. (2008). A qualitative study and 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instit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aek, M-S. (2003). Study on perception of parent education among teachers and par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and nee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ae University, Kimhae, Korea.
- Bea, J-H. (2002). An ethnographic inquiry on parent involvement and family-school partnership in early schooling.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2(4), 5-28.
- Berger, E. H. (1991). *Parent as partner in education: The school and home working together*(3rd ed.). New

- York: Merrill.
- Choi, H-J. (2003). A study of participation and need of working mother's parent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Chonju, Korea.
- Choi, H-W. (2007). Dual-careers Need and cognition about parents education,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early childhood instit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K-H. (2004). Teacher's perceptions about parent participation under parent-teacher partnership. Kyeo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 Eom, D-S. (2000).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ing and expectancy of parents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Epstein, J. L. (1986). Parent's reactions to teacher practices of parents invol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6(3), 277-294.
- Gestwicki, C. (2004). *Hom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 A guide to working with families*. New York: Delmar.
- Goldenberg, C. N. (1989). Making success a more common occurrence for children at risk for failure: Lesson from Hispanic first-graders learning to read. In J. F. Allen & J. M. Mason(Eds.), *Risk makers, risk takers, risk breakers: Reducing the risks for young literacy learns*(pp. 48-79). Portsmouth, NH: Heinemann.
- Ham, H-P., Yoon, G-Y., & Ann, S-H. (2000). The development of parents education program with the topics of the daily life in the preschool.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7(2), 199-220.
- Hong, K-M. (2003). A study about parents program in upbringing instituti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participation of education, and recogn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san University, Kunsan, Korea.
- Hwang, H-J. (2003). The personal interview : teachers' and parents' demand in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J-W. (2005). Parent involvement for building partner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W-K. (2009).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parent's education programs at the kindergarten in kyeongki-do and parents' and directors' perce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ki University, Suwon, Korea.
- Jeong, I-O. (1994). A study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in institute of adult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M-J., & Ye, J-K. (2000). Need assessment of mothers and teachers for parent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23-46.
- Jin, Y-H. (2000). Needs assessment of mothers and teachers of young children for contents of parent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o, M-Y. (2008). Recognition of teacher and parent involvement condition on the educational instit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2003). The operation practices of public kindergarten parent's associations and their recogn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R. (2003).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needs of parents and teachers for parent; education program in kindergarten parent-education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 sh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N. (2007). Study on the outlook of teachers and mothers on parent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O. (2007). *Parent's education*. Goyang: Gongdongche.
- Ko, K-J. (1992). Study about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in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W., & Kim, Y-O. (1999). *Parent education for*

child. Seoul: Dongmunsa. Lee, H-R. (2001).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arents education progra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Lee, K-S. (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Seoul: Kyomunsa.

Lee, W-Y. (1983). Study on mother's education view and child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W-Y., & Bae, S-Y. (2000). Felt needs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s contents in the parents education progra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The Journal of Child*, 21(2), 18-30.

McBride, S. L., Sharp, L., Hains, A. M., & Whitehead, A. (1995). Parents as co-instructor in preservice training: A pathway to family-centered practice.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9(4), 343-389.

Moon, H-J. (2000). Study of the parent education in the child care education: from working mother's perspective. *Journal of Human Science*, 20(1), 25-42.

Park, H-J., Jang, M-L., & Kang, H-W. (1985). Analysis in korea education's institutes operating condition.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hyeon, S-H. (2002).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cognition of parents education in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jae University, Daejeon, Korea.

Song, K-U., Yoon, H-Y., & Lee, S-J. (2001). *Creative and parent education*. Seoul: Changjisa.

Swick, K. J. (1991). *Teacher-parents partnerships to enhance school succes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접 수 일 : 2011년 7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2일